2015부평문화포럼 '새로운 변화의 시작, 문화도시 부평'

3회차 왜 부평 음악·융합도시인가?

주 최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후 원 | 부평구

프로그램

• 사회 :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조정팀 팀장)

시 간	내 용		
14:00 ~ 14:10	**인사말**		
14:10 ~ 14:50	**발 표 1. 애쉬캔(Asham City)의 기지촌, 음악이 깃든 도시의 역사와 망각의 시절**		
		김현석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위원
14:50 ~ 15:30	**발 표 2. 새로운 변화의 시작, 부평 음악·융합도시**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15:30 ~ 15:40	**휴식 (Tea Time)**		
15:40 ~ 16:30	**종합토론**		
	좌 장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토 론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근대문학관/아트플랫폼 관장

Contents

발 표 1	애쉬캔(Asham City)의 기지촌, 음악이 깃든 도시의 역사와 망각의 시절	**김현석**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위원	7p
발 표 2	새로운 변화의 시작, 부평 음악·융합도시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3p
토 론 1	부평을 음악도시로 범주를 정해야 한다	**임진모** 음악평론가	39p
토 론 3	음악중심의 문화도시를 향한 부평의 고민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근대문학관/아트플랫폼 관장	43P

발 표 1

애쉬캔 시티(Ashan City)의 기지촌, 음악이 깃든 도시의 역사와 망각의 시절

김 현 석 |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위원

애쉬캔 시티(Ashan City)의 기지촌, 음악이 깃든 도시의 역사와 망각의 시절[1)]

김현석(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위원)

1. 군수기지 건설과 인구의 유입

□ 일본 육군 조병창의 건설

- 1938년, 경기도는 '경인일체화' 구상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김
- '경인일체화' 구상은 '경인메트로폴리스'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임. 선결 과제로경인운하 건설(한강-서해), 운하 양안에 공업지대 조성, 철도 복선화, 제2경인로 건설, 철로 주변 주택가 조성 등이 제시됨
- 경기도는 1939년부터 부평 일대에 공업용지 조성과 주택지 경영을 추진해 감. 1940년 초 부평지구의 토지를 일반에 분양하기로 결정. 부평지역이 주목받은 이유는 경성과 인천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교통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 당시 경성에서 부평까지 40분, 인천에서 부평까지 17분의 이동 시간이 걸림
- 부평지역 개발과 함께 부평에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기 시작함. 이와 더불어 부평의 땅값이 폭등하는 현상 발생.
- 1938년, 히로나카 상공(弘中商工)이 토지를 매수해 공장 건설에 착수(현 부평공원), 1939년 완공. 근로자 1,088명. 주 생산품은 철도차량과 광산기계. 부평역에서 공장으로 이어지는 철로도 이 무렵 완공됨. 히로나카 상공은 미쯔비시(三菱) 중공업에 매각. 미쯔비시는 제강주식회사를 분리하고 부평공장을 상인천제작소(上仁川製作所)로 이름을 바꿈. 히로나카 상공이 근로자들을 위해 부평2동에 사택을 조성하여 현재'삼릉(三菱)'이라는 지명으로 남음.
- 부평지역 공장 건설과 함께 전국 각처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한 부평지역으로의 이주가 본격화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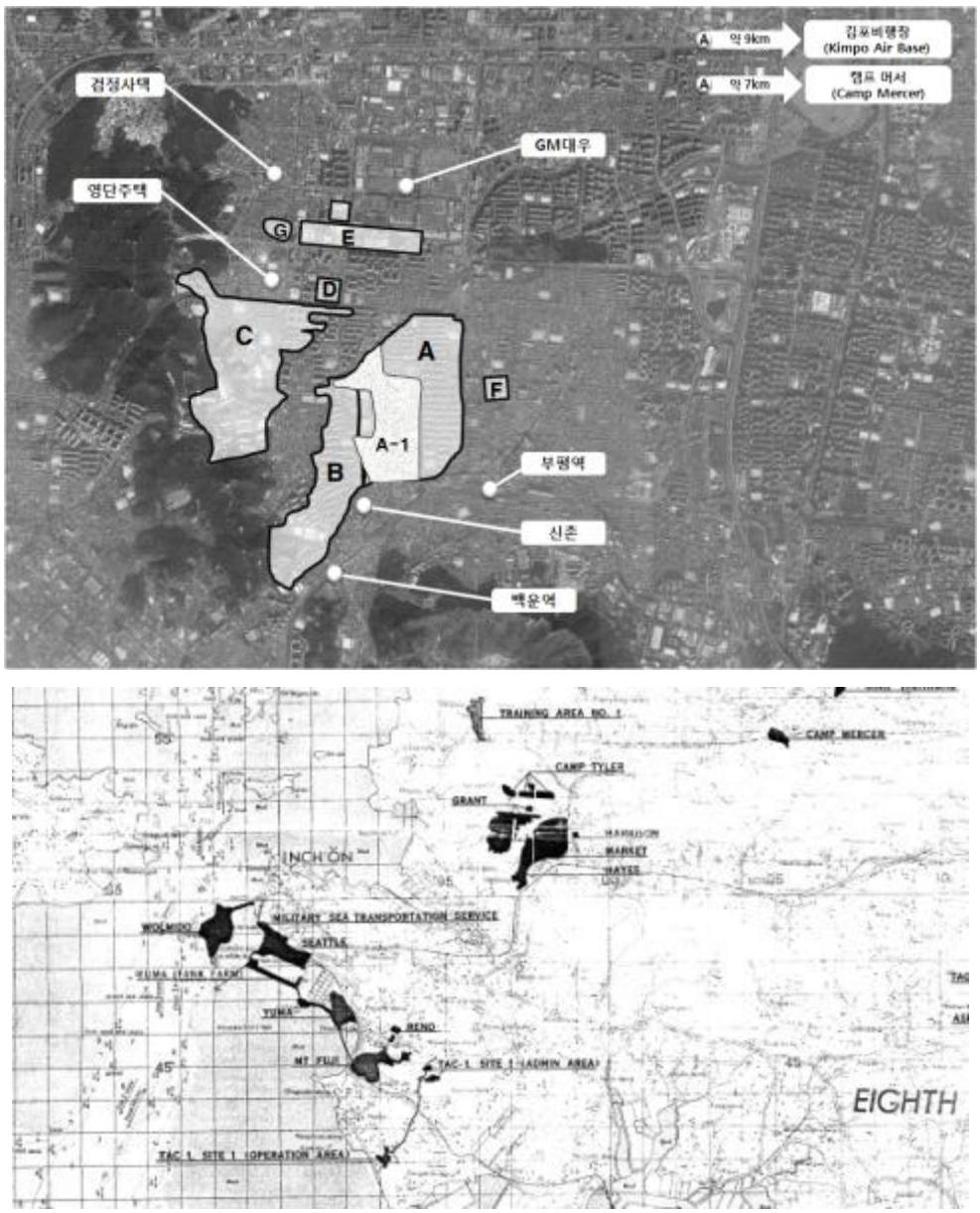
1) 이 글은 부평역사박물관에서 11월 발간 예정인 『신촌 마을 조사보고서』(가칭)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음

○ 이석재 옹(1920년 생)의 사례

2007년『부평사』에 수록된 인터뷰를 했던 이석 재 옹은 얼마 전 작고함. 1930년대 말 서울 뚝섬에서 신촌에 처음 이주해 와 70여 년을 살았던 신촌의 초기 정착자. 이석재 옹은 뚝섬에 있던 외갓집에서 3년여간 살다가 부평으로 이주함. 열여덟 살 때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동생들 모두 아홉 명이 넘어 옴.
할아버지는 뽕나무, 호박 등 농사를 지었고, 부친은 '여름에도 버선 신고 이러고 양반행세'를 했다고 함. 뚝섬에 있던 2만 평의 땅을 평당 2전, 3전에 판 후 그 돈을 들고 부평에 왔음. 당시 신촌에는 인근에 히로나카 공장과 삼릉사택이 있을 뿐 허허벌판이었다고 함. 친척이 이미 와 있었기에 그 옆으로 따라 온 셈. 아직 조병창이 생기기 이전임.
조부는 가족들보다 앞서 도착해 집을 짓고 터를 닦았음. 그때 신촌으로 들어 온 사람들이 열 채 가량 집을 짓고 '새마을 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음. 1920년 생인 이석재 옹이 신촌에 들어온 해가 18세 때이니 1939년 무렵임. 막 히로나카 상공이 부평공장을 완공할 때. 신촌에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이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됨

□ 미 애스컴 시티(ASCOM City)의 건설

-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후 일본 육군 조병창을 접수하며 부평에 주둔, 이곳을 애스컴 시티(ASCOM CITY)라고 명명함. 애스컴 데뽀(ASCOM Depot)라고 부르기도 하며'푸헤이 알스널(Fuhei arsenal)[부평 조병창]'이라고 표기하기도 함.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철수를 시작해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겨둔 채 1949년 6월 29일 모두 한반도를 떠남. 한국전쟁 발발 직후 잔류 인력까지 모두 철수하였다가 참전과 함께 미8군이 다시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
- 애스컴(ASCOM, Army Support Command)은 1973년 기능이 정지되어 해체됨.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애스컴 시티는 부대별로 구역화되어 존재했는데 1950년대에는 '쿼터마스터 시티(Quartermaster City)' 등으로 부르는 7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1963년부터는 '캠프 그란트(Camp Grant)' 등으로 명칭이 재조정됨. 부평지역 주민들은 대개 '8057부대'와 '55부대'로 통칭해 부름. 8057부대는 현대아파트자리에 있었고, 55부대는 현 캠프마켓 부지를 중심으로 위치한 부대였음. 두 부대는 안남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구분돼 있었음. 그밖에 '보급창'이나 '121병원' 등도 자주 거론되는 명칭 중의 하나임.



〈애스컴 시티(ASCOM City)와 인천지역의 미군 배치도〉

-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 수준이며 5개 구성군으로 구분되어 있음. 미군은 한국 전구(戰區, Korean Theater)를 모두 6개 권역(Area)으로 구분하고 각각 6개의 주둔지(USAG, United States Army Garrison)를 중심으로 운영중인데 캠프마켓은 그중 용산미군기지(Yongsan Garrison)에 속한 미 육군의 군수기지(logistics depot)임.
- 캠프마켓은 현재 미 육.공군 교역처 베이커리(AAFES Bakery), 창고 등 저장시설을 운용중임

2. 부평기지촌과 기지촌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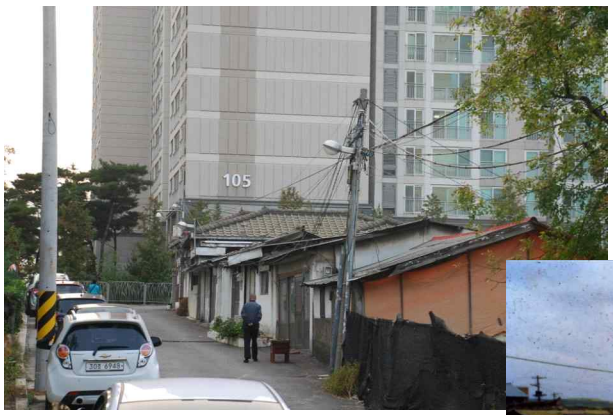
□ 부평기지촌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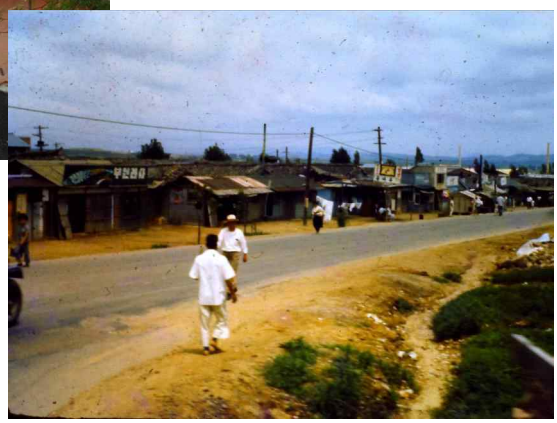
- ‘기지촌’이란 ‘외국군 기지 주변에 형성된 촌락’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신촌에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건 1930년대 후반 무렵임. 일본 육군 조병창과 미군기지 애스컴을 거치면서 부평은 기지촌으로 성장해 갔고 기지촌의 역사는 70여 년을 훌쩍 넘음. 광복 후 부평에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기지촌이 존재했음. ‘신촌’,‘백마장’, ‘삼릉’, ‘관동조’, ‘다다구미’등지에 기지촌이 있었음.
- 각 기지촌들은 나름대로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음. 신촌과 백마장은 주로 미군들이 드나들면서 ‘미군위안부’들과 ‘계약동거’, 혹은 ‘일회성 거래’ 등의 형태로 관계를 형성하던 장소임. 삼릉은 기지촌 중에서 미군 물품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던 공간임. 기지촌마다 미군 PX에서 나온 물건들을 파는 소위 ‘양키시장’이 존재했지만 삼릉은 규모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함. 관동조도 미군이 자주 드나들던 지역이었음. 다만, 다다구미는 미군기지 주변에 있긴 했어도 미군들보다는 한국인들을 주로 상대한 ‘특수지역’이었음.
- 관동조(關東組)와 다다구미[多田組]는 모두 일제강점기 조병창 확장 공사에 참여했던 토목회사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짐. 관동조는 ‘관동주’라고도 부르며 산곡2동주민센터 인근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음. 최근 개발돼 대부분의 집들은 사라짐. 다다구미는 북인천우체국 인근을 지칭함.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새 건물들이 들어섰으나 여전히 옛 주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임.
- 부평기지촌은 광복 후 한국에 등장한 최초의 기지촌으로 알려짐.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면서 그해 말엽 부평에 기지촌이 생겼다고 보는 것임(여지연 지음·임옥희 옮김,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삼인, 2007)

□ 애스컴과 부평기지촌

- 광복 후 애스컴 시티(ASCOM City)의 군사우편 주소는 APO 901. 편지를 보내려면 ‘APO ○○ Sanfrancisco, Calif.’라고 적어야 했음. 부평사람들은 꽤 긴 시간을 허상의 공간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셈. 허상과 실체를 경계 짓는 긴 담장이 아직 존재함.

〈부평기지촌의 분포 현황〉





〈관동조와 백마장〉

- 주한미군기지는 한미동맹의 최전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외교 전략이 바뀔 때마다 전략의 맨 끝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와 기지촌은 요동쳤음. 한미동맹을 평가할 때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의 중요한 축' 또는 '종속성이 특히 심각'한 '불평등한 동맹' 등 여러 의견들이 교차함. 군사와 외교라는 거시적 평가를 잠시 접어놓고 바라본다면 부평미군기지에 근무했던 미군들과 주변 기지촌의 주민들은 소소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상생해 갔다. 그 과정에서 협력과 충돌이 번갈아가며 모습을 드러냈음.
- 둘 사이의 관계 중 상대적으로 큰 거부감 없이 교류가 이뤄진 분야는 단연 대중문화임. 미군들도 낯선 이국땅에서 생소한 문화를 접하며 한국과의 만남을 이어갔겠지만 한국인들 또한 주한미군을 통해서 미국의 대중문화를 흡수하는 경험을 겪었음.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유입된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해 봐야 할 문제로 남음.

□ 미군 클럽의 운영

- 미군클럽은 크게 영내 클럽과 영외 클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영내 클럽은 미군기지 안에서 운영하는 클럽으로 NCO 클럽, EM 클럽, Officers 클럽 등으로 대별됨. 이외에 Service 클럽도 존재함
- 대표적인 미군 영내 클럽인 NCO 클럽은 애스컴 사령부 관할 구역 내에 18개가 운영되었음(인천, 김포, 군자 등). Service 클럽은 미군이 예산을 배정하지만, NCO 클럽은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인이 운영함. 1개 클럽에는 지배인, 부지배인, 바텐더, 바텐더 주니어, 쿡, 쿡 주니어, 캐셔 등 70~8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였음. NCO 클럽의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빙고 게임인데 이를 통해 수익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 유지됨. 영업이 잘 될 때는 '반값 제공(happy price)' 등의 행사도 진행함
- 영외 클럽은 신촌 등 미군기지 밖에서 운영되던 클럽임. 신촌에만 17개 가량의 클럽이 존재하였음
- 미군 클럽은 '미군 위안부'와 미군이 '거래'를 하는 장소로도 활용됨. 우리나라에서 공창제(公娼制)는 1947년 11월 14일, 법률 제7호로 「공창제도등 폐지령」이 공포되어 3개월 후인 1948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공식적으로 사라짐. 그러나 '사창(私娼)'은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남. 특히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합법적 공간인 클럽, 바 등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곳을 통한 미군들의 성매매는 사실상 미군에 의해 관리를 받았음
- 미군을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의 증가는 한국전쟁 후 두드러지게 나타남. 1953년도 통계에 의하면, 휴전 직후 '등록된' 인천의 '미군위안부'를 133명으로 파악했는데 수입은 800환에서 1,500환 정도로 보았음.[2] 1950년대 말에는

경기도 내에 5,000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중 부평이 1,500명으로 경기도 내 다른 기지촌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를 차지함

〈표 1-〉경기도 내 '미군위안부' 분포 상황

지역	'미군 위안부' 수
부평	1,500
인천	200
파주	1,100
양주	900
평택	400
포천	350
안양	100
김포	100
연천	90
강화	20

『기호일보』, 1959년 10월 18일자

- 미군과 '미군 위안부'와의 관계 속에서 혼혈아가 발생함. 한국전쟁 직후 혼혈아는 조금씩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함.
- 부평지역에서는 부평3동 성당 주임신부였던 최분도 신부와 서재송 옹이 혼혈아들을 돌보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해왔음. 특히 서재송 옹은 1997년까지 '성원선시오의 집'을 운영하며 '혼혈아들의 아버지'로 남았고, 지금도 미국을 오가며 그때 함께 한 아이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
- 부평지역에는 이외에도 산곡동의 명성원, 일신동의 시온고아원 등 한국전쟁 후 고아원이 여러 곳에 설립됨. 화랑농장에는'보양원(保羊院)'으로 부르던 '성요셉 직업보도원'도 있었음. 1958년 11월 18일 계산동에서 처음 설립돼 1967년 화랑농장으로 옮겨온 시설임. 처음에는 전쟁고아들을 수용하는 고아원으로 운영하다가 1969년부터 직업 보도 시설로 인가를 받았음

〈초기의 부평3동 성당〉

2) 『인천신보』, 1953년 11월 26일자.

3. 부평기지촌과 미국 대중음악

□ 주한미군 방송의 시작

- 미군 기지촌만이 아니라 광복 후 미군의 주둔과 함께 한국에는 미국에서 직수입된 대중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가기 시작함. 가장 큰 역할을 맡은 건 방송이었음. 광복과 함께 남한에 주둔한 미군은 AFKN의 전신인 WVTP 방송을 10월 22일부터 시작. 한국전쟁 개전으로 방송을 중단한 1950년 6월 28일까지 WVTP는 미군의 선전 방송 역할도 맡았으나 미국 문화의 공급처이기도 했음. 주한미군을 주 대상으로 하여 송출하는 방송이었어도 한국인들의 관심 역시 높았음. 이 무렵부터 미군의 대중음악 등이 본격적으로 라디오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함.
- 광복 당시 인천의 라디오 청취자는 1,100여 명 정도였고 보유 대수는 500여 개였음. 당시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는 청취료를 내야 했는데 1945년도 기준, 1개월에 1원이었음. 여전히 대부분의 라디오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일본 제품이었음. 더구나 성능이 좋지 않은 것도 400~500원의 고가에 팔리고 있어서 미국에서 생산한 2십만 대의 라디오를 수입, 보급하려는 계획이 1945년 말에 계획되기도 함. 등록을 하지 않고 듣는 건 불법이었고 이러한 행위는 '도청'으로 간주돼 단속의 대상이 되었음.
- 한국전쟁 발발 무렵까지 운영된 WVTP가 부평 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을 가늠하는 건 쉽지 않음. WVTP는 미군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제외하면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었음. 다방 등지에서 '노상' 틀기도 했지만 미군을 청중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악단들에게도 미군이 선호하는 음악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교재였다고 함. 이른 시기부터 미군과의 만남을 시작했던 부평 주민들 역시 역시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군들과의 교류를 이어갔을 것임. 주한미군방송을 통한 대중문화의 유입 또한 그중 하나의 통로였을 것으로 추정됨
- 미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하며 다시 AFKN(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 방송을 시작함. 1950년 10월 2일 미군 방송대가 서울에 도착해 이틀 후인 10월 4일부터 송출함. 이에 앞서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9월 27일, 일반명령 제84호로 AFKN 라디오 창설을 결정했음. 1951년 6월경에는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 중이었고, 전선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면서 그 수를 점점 늘려감
- 1956년 10월 집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라디오 보유 대수는 6,037대였음. 그중 부평지역에 1,010대가 있었음.

〈표 1〉1956년도 부평지역 라디오 보유 현황

동명	총 대수	전기식	전지식	전기·전지겸용	전체 호수
부평2·3·십정2	95	56	21	18	1632
부평 1	291	291	0	0	2185
산곡청천	515	315	50	150	1351
부개일신구산	54	45	6	3	486
삼산갈산	55	55	0	0	412
총계	1,010	762	77	171	6,066

『대중일보』, 1956년 10월 26일자.

- 라디오의 뒤를 이어 AFKN-TV가 개국한 건 1957년 9월 15일이었음. AFKN-TV는 상업적인 오락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높았다는 평을 받음. AFKN 방송은 특히 미국의 대중음악을 접할 수 있는 주요 통로였음. 이영미는 AFKN과 영화의 진입이 미국 팝음악의 유입을 본격화 시켰다고 보았음. 1950년대는 또한 '미8군 쇼'의 시작을 알린 해이기도 했음. 황문평은 '미8군 쇼'가 비록 '위스키 몇 병'과 '캔맥주 몇 박스'로 대가가 주어지던 때가 있었지만 '생활이 보장되는 곳'이면서 '팝뮤지션들의 훈련장'이기도 했다고 평가함. '미8군 쇼'는 '팝계열의 가요 창작'으로 이어져 1961년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의 흥행과 함께 약진해 1970년을 전후한 시기 록, 포크, 소울 등 여러 갈래로 분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옴. 임진모는 이러한 우리 대중음악의 흐름 속에서 부평의 위치를 꽤 의미 깊게 보았음

한국전쟁 이후 부평에 주둔한 미군들은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내에서 음악을 했다. 영외의 많은 클럽에서도 재즈와 로큰롤, 스탠더드 팝 등 다양한 음악을 즐겼다. 전국에 있는 여느 '에스캄 시티' 주둔지역보다 큰 규모의 클럽들이 성업했다. 배호, 한명숙과 같은 가수들, 기타리스트 신중현, 김홍탁, 김청산 등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음악인들이 모두 부평을 거쳤다. 이런 사람들이 트로트 밖에 없었던 우리 음악에 새로운 씨앗을 뿌린 거다. 부평이 '한국 대중 음악의 진정한 거점'이라는 수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 부평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2020년까지 '부평 음악·융합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음. 부평3동을 포함해 문화벨트를 조성하려는 계획인데 '음악 도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함. 미군기지가 이른 시기부터 정착하며 부평지역이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임. 미군기지를 매개로 한 음악의 역사가 반드시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인 건 아님. 젊은 시절

밴드 활동을 하던 친구들과 교류가 잦았던 박차영은 옆에서 보기에 음악을 한다는 게 꼭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회고함.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임. 그럼에도 한때 '스타더스트'란 이름의 밴드에서 드럼을 쳤던 박현호의 경우처럼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에 흠뻑 빠져 무작정 뛰어든 경우도 있었음. 박현호는 우연히 애스컴 영내에서 드럼을 연습하는 젊은 배호의 모습에 반해 '스틱'을 잡았다고 함.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를 통해 전파된 미국 대중음악은 우리 음악사에 분명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 신촌, 그리고 이웃한 삼릉은 한국 현대 대중음악사의 초창기를 구성했던 수많은 음악인들이 거쳐 간 장소로 최근 다시 주목받는 중임.

□ 밴드 음악의 레퍼토리

- AFKN 라디오 방송 중 지금껏 회자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American Top 40'임. 한국의 음악인들은 이러한 방송을 통해, 혹은 미군들로부터 직접 악보를 받아 레퍼토리를 완성함. 당시 극장에서는 영화만 상영한 것이 아니라 미8군 무대 경험을 갖고 있는 밴드와 가수들의 공연을 극장 쇼의 형태로 공연했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최근 유행하는 음악과 춤을 경험할 수 있었음. 캬바레 등도 마찬가지였음. '미8군'이란 타이틀은 주목을 받는 광고 문구로 작동함
- 미군을 상대로 한 음악 밴드들의 주요 레퍼토리는 주로 미군의 취향을 따라 결정되었음. 광복 직후는 'You are My Sunsine', 'Besame Mucho', 'Sentimental Journey' 등이 유행함.

❍ 박차영의 회고

우리 친구 중에 지금 케냐에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놈이 음악을 그렇게 잘 했어요. 기타를 잘 쳤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가발을 쓰고 미8군을 나갔어요. 부평 애스컴에 다녔죠. 작은 밴드를 만들어서 다녔어요. 이 친구가 이강석이란 친구에요. 나중에 '라스트찬스'라는 밴드를 하죠.
부평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공연하러 다니더라구요. 그중에서 파주 장파리는 우리 친구들한테 꽤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돈 못 받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이러던 곳이었어요. 밴드활동을 한다는 게 꼭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은 장파리 얘기를 하면 아주 힘들어 해요.
이 친구들 덕분에 신촌에도 와 보고 장파리도 가보고 애스컴에도 들어가 보고 그럴 수 있었죠. 신촌은 그땐 형편없었어요. 초가집들 있고, 아가씨들은 냇가 나가서 빨래하고 그러던 때죠. 클럽 안은 담배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한 게 소리도 엄청나게 커서 못 앉아 있겠더라구요. 클럽에는 한국인은 못 들어가요. 앞에 기도가 서 있어요. 한국인들은 일절 안 받아요. 우리는 친구가 공연을 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무렵에는 다들 CCR 노래를 많이 불렀죠.

- 1956년 엘비스 플레슬리의 등장, 1962년 비틀스의 결성이 이루어짐.
- 김종용에 의하면, 미군 중 백인과 흑인은 취향은 다른 경향을 보임. 음주 습관에도 차이가 있어서 백인은 주로 맥주를 마시는 반면, 흑인은 진에 오렌지 쥬스(오렌지 가루를 넣은 소다수)를 넣어 마심. 백인은 주로 엘비스 플레슬리, 클리프 리차드의 음악을 즐겨 들었고, 흑인들은 레이찰스, 제임스 브라운, 루루 등의 솔 음악을 좋아함. 오티스 레딩(Otis Redding)의 'I've been Loving You Too Long'은 특히 자주 듣던 음악임. 김종용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신촌 클럽들이 음향시스템을 최고 시설로 구비해 놓아 생음악을 하기가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함. 당시 음반은 원판의 경우 PX에서 구입하고, 재생판은 이태원에서 주로 구입하였음
- 1962년부터 1973년까지 부평에서 밴드 생활을 했던 박현호는 'Take Five', 'In the mood' 등의 음악을 주로 연주했다고 함. 백인의 경우 힐리 빌리, 흑인의 경우 재즈를 즐겨 들었다고 함.

4. 소결

- 일제강점기 이후 정착된 군수기지는 부평지역의 지역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음. 군수기지와 그곳에서 근무한 외국군 및 한국인의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은 부평지역의 근현대사를 분석하는 기초작업임
- 군수기지는 필연적으로 기지촌의 생성을 초래함. 부평지역의 기지촌은 각 지역별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1970년대 중반까지 활성화 되었음. 기지촌에는 '미군 위안부', '혼혈아', '양키시장', '미군클럽'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존재함. '일본군'과 '미군'도 기지촌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구성원이었음. 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함
- 기지촌 문화 중 상대적으로 긍정적 교류의 결과를 낳은 건 '대중문화'임. 미국의 대중문화 유입이 끼친 폐해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미군과 미군기지를 통한 문화의 접촉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영향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발전하는 데 창조성으로 작용하기도 함.
- 특히 미국의 대중문화는 음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애스컴 기지는 미군 영내 18개의 NCO 클럽을 관장하면서 밴드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애스컴 주변의 영외 클럽은 선진 음향 시스템과 일부 밴드 운영의 병행으로 새로운 대중음악의 전파 주체가 됨
- 기지촌은 한 지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파주, 평택, 군산, 동두천, 의정부, 부산 등 우리나라 전역에 기지촌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함. '미군 위안부'와 '밴드'등 기지촌을 구성하는 여러 인적 구성원들은 타 지역의 기지촌을 오가며 삶을 영위했음. 기지촌들간의 관계, 혹은 각 기지촌들의 성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부평기지촌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함

□ 주요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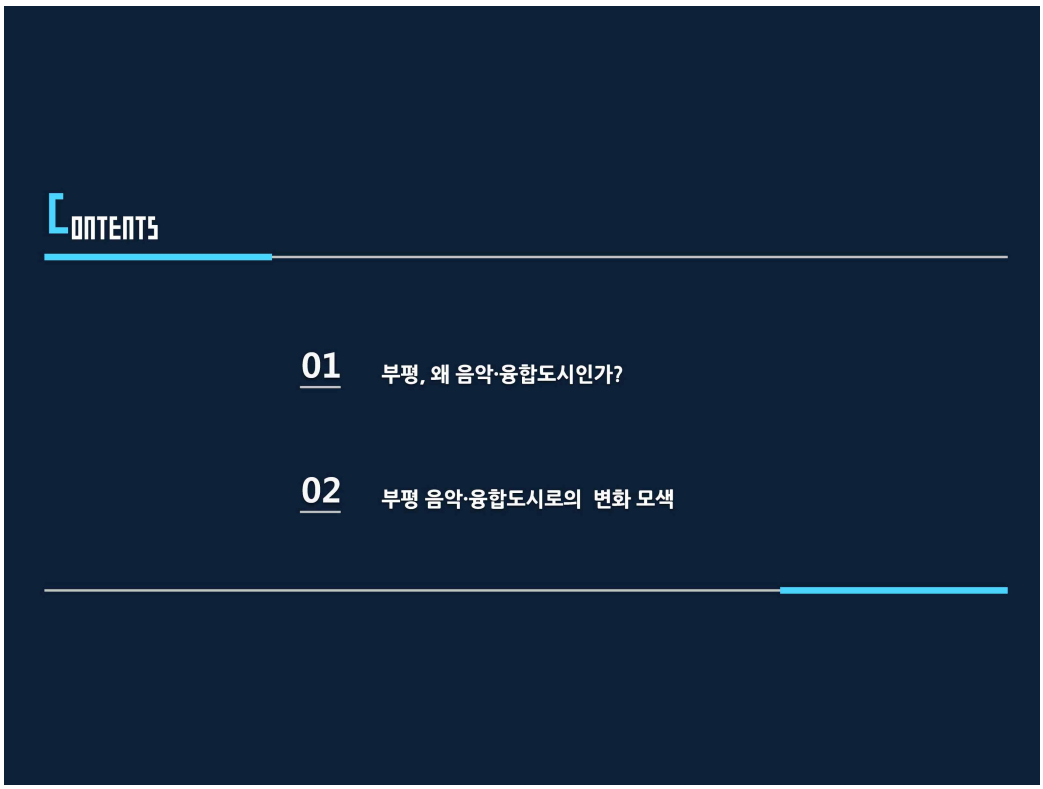
- 『대중일보』, 『인천신문』, 『경기매일신문』, 『기호일보』
- 김옥경,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낸다 -서해에 빛나는 별 최분도 신부』, 최분도 신부님 추모위원회.
- 박용규, 「주한미군방송(WVTP)의 등장과 영향(1945～1950)」, 『한국언론학보』 58-1, 한국언론학회, 2014, 360～369쪽.
- 김이호, 「미군방송네트워크(AFN)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37쪽.
-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6, 142쪽.
- 황문평, 『야화 가요60년사』, 전곡사, 1983, 166～168쪽.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팀, 『1961～1975 한국 대중음악사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4·12·26쪽.
- 『BODA』 1, 부평구문화재단, 2015, 6쪽.
- 『부평사람들』 230호, 부평구청, 2015. 5. 25.
- 조기준, 『부평사연구』, 백암문집간행위원회, 1994, 388쪽.
- 여지연 지음·임옥희 옮김,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삼인, 2007, 44쪽.
- 지혜영, 「미군정기 인천의 공창제 폐지 과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41～42쪽.
- 박용규, 「AFKN-TV의 특성과 문화적 영향(1957～1996)」, 『언론과학연구』 14-3, 한국지역언론학회, 2014, 107·111쪽.

발 표 2

새로운 변화의 시작
부평 음악·융합도시

고 동 희 |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새로운 변화의 시작
부평 음악 • 융합 도시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gu Cultural Foundation


CONTENTS
01 부평, 왜 음악·융합도시인가?
02 부평 음악·융합도시로의 변화 모색

1 부평, 왜 음악·융합도시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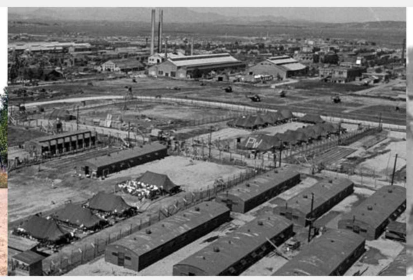
부평의 음악관련 역사적 자원

1. 부평 왜 음악·융합 도시인가?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 애스컴

- 부평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 해병대 주둔지에서 주한 미군 전체의 보급 물자를 담당하던 주한미군해병대 지원사령부(ASCOM) 주둔지로 변모
- 당시 부평(신촌·삼릉)은 미군을 상대로 한 각종 부대산업이 꽃피었으며, 신촌 지역에 20~30개의 클럽이 운영될 정도로 성업을 이룸
- ASCOM 은 우리 음악가들의 공연활동 무대이면서 타 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역할을 함
- ASCOM을 통해 스탠더드 팝과 로큰롤(rock'n'roll)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볼 때 부평은 우리나라 음악사의 변환점을 이룬 역사적 배경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ASCOM



부평미군기지 1970년대 모습

ASCOM에서 펼쳐진 위문공연

4

부평의 음악관련 역사적 자원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 애스컴

- 과거 ASCOM 정문 옆은(현 동수역 3번 출구) 미군클럽에서 연주하는 악사들이 집합하는 장소였음. 현 동수 역 근처에는 7~8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밴드들이 무리지어 하숙을 하였음
- ASCOM 의 미군 클럽들이 문을 여는 시간이 가까워오면, 부평은 물론 인근 경기도 의정부와 오산 지역 미군클럽까지 악단들을 태우고 가기 위해 삼릉 대로변에는 악사들을 태워 갈 미군의 차량들이 나와 있었음
- 악단들은 자신들이 공연할 부대의 차들을 타고 출발했다가 공연이 끝나면 다시 이차를 타고 와 삼릉 당구장 앞에 내리는 방식이었음
- 미군들의 수송까지 담당하던 삼릉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삼릉 주변은 어렐게 모여든 악사들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악사들이 모여 사는 독특한 지역이었음

→ 약 150여명 내외의 악사들이 삼릉과 신촌 그 일대 주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됨

부평 신촌 지역 소재 클럽 분포도

부평 신촌 지역(부평3동)은 해방 이후, 70년간 주둔해온 미군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입니다. 일명 '기지촌'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던 부평 신촌에는 1980년대까지도 이국적인 문화가 범람하던 곳이었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은 '2015년도 학술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 신촌 지역의 역사를 지역주민들의 증언으로 조사하던 중, 대중음악 지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던 '미군전용 클럽'들의 위치를 대략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이외에도 부평 신촌 지역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 032.515.6472

부평의 음악관련 인적 자원

구분	부평 관련 음악가
50년대~60년대	<돌아가는 삼각지>의 배호,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의 한명숙 , <내 사랑 주리안>·<우리 애인은 올드미스>의 최희준 , <밤안개>의 현미, <사랑과 평화>의 보컬 이철호, <한국 락 기타의 귀신>이라는 별명을 듣던 김홍탁 등
70년대~90년대	구창모, 최성수, 유심초, 백영규, 파이오니아, 서울패밀리, 이승재, 코요테(신지), 박기영 등
2000년대 ~현재	글루미써티스(KBS 드라마'추노'), GUTZ(3인조 인디밴드), 써드스톤(3인조 인디밴드), 리규영(루비살롱레코드 대표), 하일라이츠, 락타이거즈, 덤덤라디오, 카멜라이즈(포크트리오), NARANG, 블루니어마더, 부평올스타악단, 정유천밴드, 휘모리 등

부평의 음악관련 인적자원

인천에서 활동하는 밴드(전문음악인) 현황

번호	밴드명(부평)
1	프리다칼로(4)
2	빅푼(4)
3	거츠GUTZ(4)
4	글루미써티스(4)
5	메소드(4)/헤비메탈
6	해머링(4)/헤비메탈
7	디아펜테(4)
8	써드스톤(3)
9	정유천밴드
10	스트릿건즈(5)구 락타이거즈)
11	덤덤라디오(2)
12	카멜라이즈(4)/포크트리오
13	나랑NARANG(4)
14	블루니어마더(5)
15	부평올스타악단(20인조악단)
16	휘모리(5)/스피드메탈
번호	밴드명(부평 외 인천)
17	사하라(4)
18	스트레인저(4)
19	더윙THE WING(6)/펑크블루스
20	블랙신드롬(4)
21	CH밴드(4)
22	포헤르츠4HZ(4)
23	블랙메디슨(4)
24	PNS(4)
25	리빙스톤데이지(5)
26	데스팟(4)
27	해머링(4)
28	락스네이크(5)
29	비욘드(5)
30	예술빙자사기단(4)
31	R419(4)
총합	31개 밴드(145명)

인천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밴드 현황

번호	밴드명	번호	밴드명
1	보름달 늑대	31	B-GAIN
2	재밴	32	애드립
3	빅버디	33	하이퀄리티페이스
4	앤드윌	34	뮤직트레인
5	블루와인	35	로드하우스
6	서용밴드	36	크로마이트(힙합)
7	바다의 별	37	제로나인(힙합)
8	저스트그루브	38	D.ONE
9	카프카	39	RAMPAGE
10	세상밖으로	40	스페이스몽키
11	파우스트	41	오버스칭
12	빅윌	42	0154
13	그로잉업	43	MOAB
14	사운드테라피	44	이퀄라이저
15	EX-Tension	45	오질리카
16	쿨스	46	CRUX
17	노글레시스 앤 플러스	47	DESPOT
18	노이즈콘트롤	48	NK밴드
19	ROZE	49	매니몰밴드
20	크로키	50	메페스토
21	에이스윌	51	시나브로
22	곰플레이어	52	에코민
23	바라	53	슈트
24	J&B	54	비상구
25	퍼플레이닝	55	공무수행
26	AI	56	폴리스라인
27	화려한 외출	57	IMGL
28	브레인웨어	58	몬스터색소폰 앙상블
29	향.기.사	59	THE 1984
30	슬리핑프린스	60	감초싸롱
총합	약60개 밴드(약240명)		

부평의 음악관련 인적자원

1. 부평 왜 음악·융합 도시인가?

● 인천출신 밴드 주요활동 내용

➢ **써드스톤(Third Stone)**
박상도(기타・보컬), 한두수(베이스), 안성용(드럼) 3인조 사이키델릭 블루스록 밴드

- 밴드결성(1997년)
- EBS 스페이스 공감 1002회 출연(2014년 2월 13일 방송)
- 1집 Third Stone(2007), 2집 I'm Vot A Blues Man(2009), 3집Psychemoon(2013)
- 영국의 권위 있는 국제 음악 축제 **'리버풀 사운드 시티 페스티벌 (Liverpool Sound City)'** 참가(2015.05.23~24)
- 영국 유통사 AWAL Record 사와 앨범계약. 영국 공식 발매 예정(2015.06)

➢ **글루미써티스(Gloomy 30's)** 신용남(보컬), 김선규(기타), 고종의(베이스), 남정익(드럼) 4인조 밴드
- KBS드라마 추노 OST '바꿔'(2010.01)

➢ **블루니어마더**서종수(드럼), 한준희(기타), 이재훈(베이스), 김세규(기타), 오형석(보컬) 5인조 밴드
- KBS2 밴드 서바이벌 TOP 밴드1 출현

➢ **거츠(GUTS)** 전두희(기타・보컬), 이현재(베이스), 김선미(드럼), 김나하비(키보디스트) 4인조 밴드
- 전국투어공연, 일본투어공연(2010.7~11)
- 네이버 뮤직명예의전당(2009~2010)

9

부평의 음악관련 콘텐츠 자원

1. 부평 왜 음악·융합 도시인가?

● 인천부평 풍물대축제

- 2014년, 201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대표공연예술 축제' 선정
- 1997년에 축제를 시작한 이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통해 부평 농경문화를 재현하고 전통문화인 풍물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매년 부평대로에서 개최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

●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 2014년, 2015년 연속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지원사업 선정
-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뿌리 애스캄을 배경으로 한 음악이야기로 부평의 음악적 자산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음악도시 부평의 가치를 담아낸 공연
- 2015년 12월 17일(목)~12월27일(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공연진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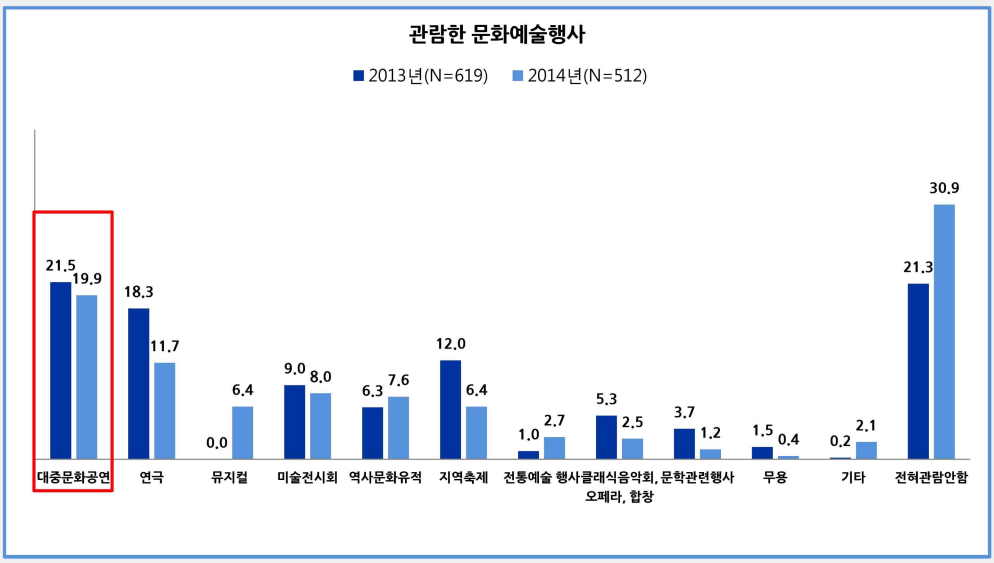
부평의 음악관련 콘텐츠 자원

부평 밴드페스티벌

- 2015년 부평밴드페스티벌 “오리지널&탑밴드” 개최(2015.10.16.~10.17.)
-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출발지이자 성장거점이 된 부평의 음악적 역사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스토리가 있는 음악축제 “
- 기존 뮤직 페스티벌과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음악도시 부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문화예술 주민 인식 및 요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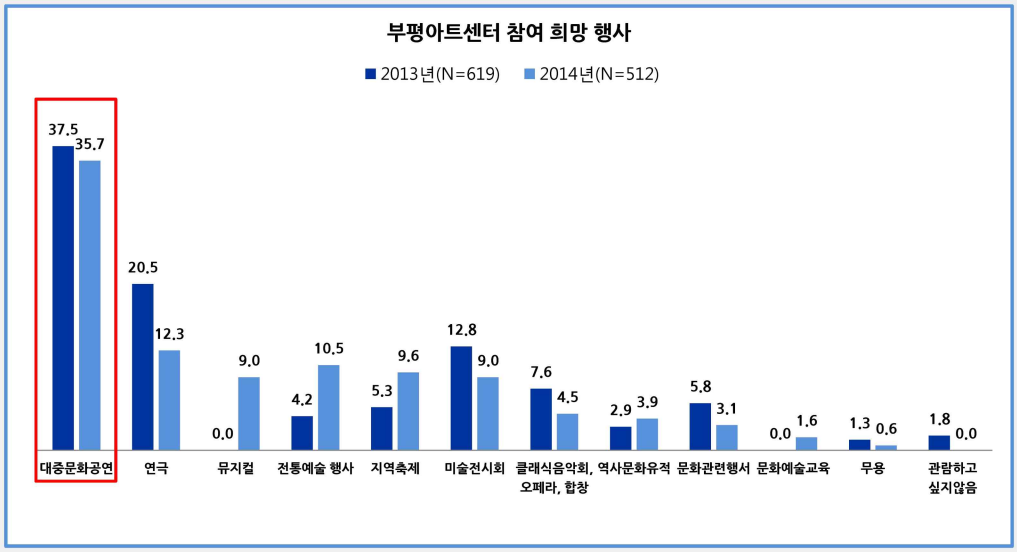
관람한 문화예술행사



•자료출처:부평구문화재단, 「2014부평아트센터 이미지맵 조사 결과 보고서」

문화예술 주민 인식 및 요구조사

● 부평아트센터 참여 희망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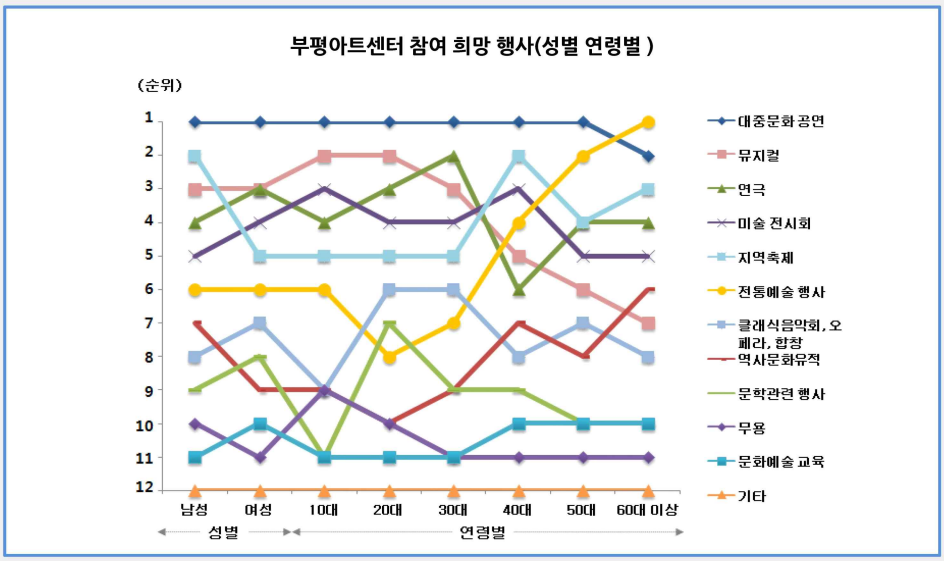


•자료출처:부평구문화재단, 「2014부평아트센터 이미지맵 조사 결과 보고서」

13

문화예술 주민 인식 및 요구조사

● 부평아트센터 참여 희망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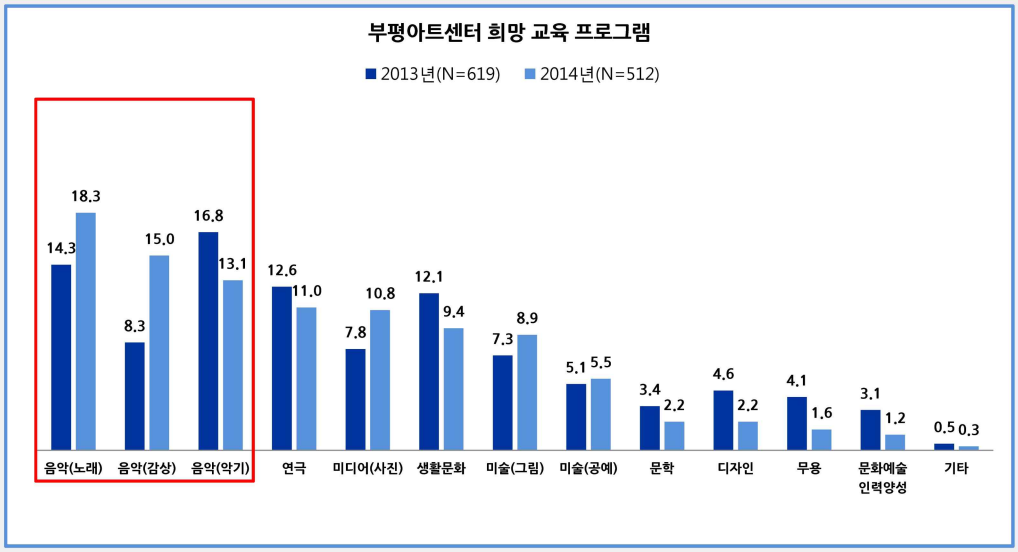
•자료출처:부평구문화재단, 「2014부평아트센터 이미지맵 조사 결과 보고서」

14

문화예술 주민 인식 및 요구조사

1. 부평 왜 음악·융합 도시인가?

부평아트센터 희망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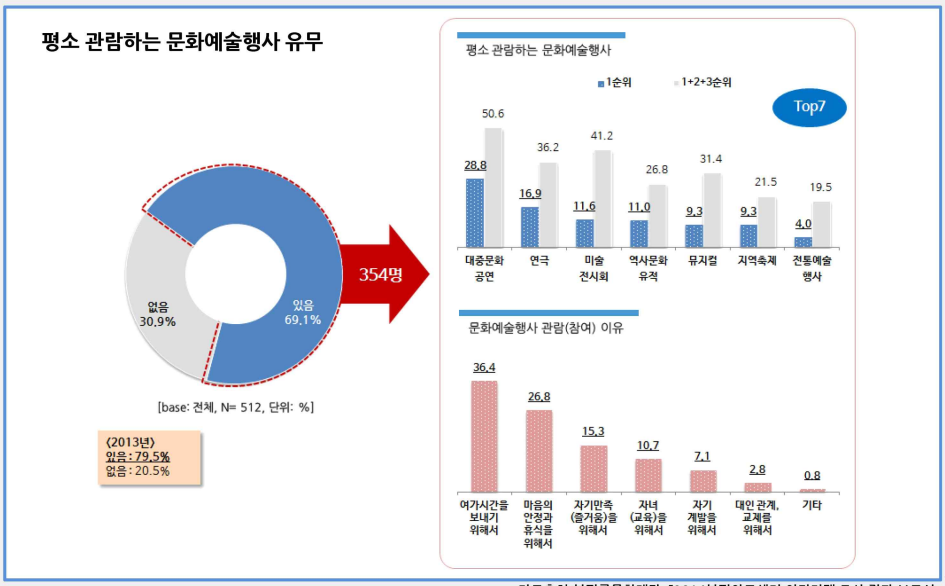
•자료출처:부평구문화재단, 「2014부평아트센터 이미지맵 조사 결과 보고서」

15

문화예술 주민 인식 및 요구조사

1. 부평 왜 음악·융합 도시인가?

문화예술행사 참여여부와 관람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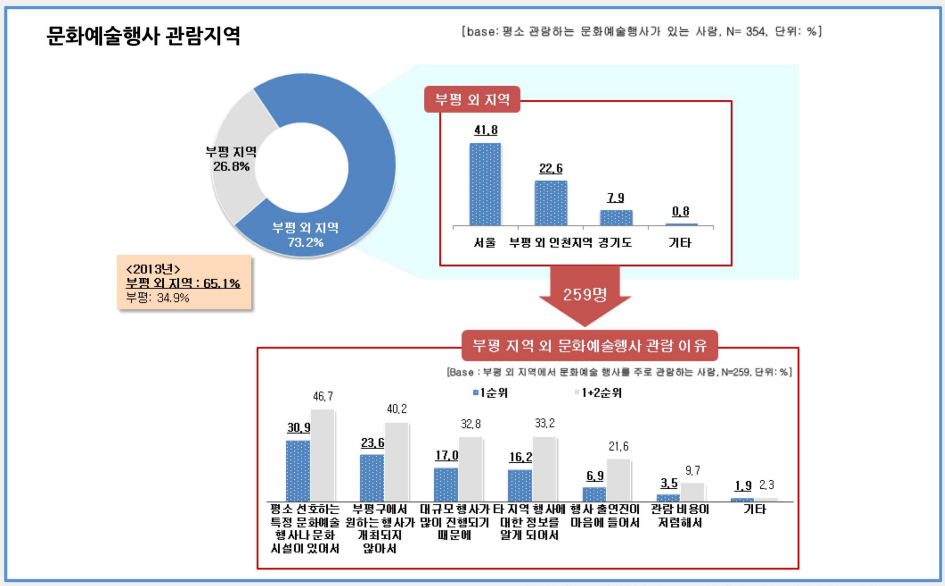
•자료출처:부평구문화재단, 「2014부평아트센터 이미지맵 조사 결과 보고서」

16

문화예술 주민 인식 및 요구조사

1. 부평 왜 음악·융합 도시인가?

●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



•자료출처:부평구문화재단, 「2014부평아트센터 이미지맵 조사 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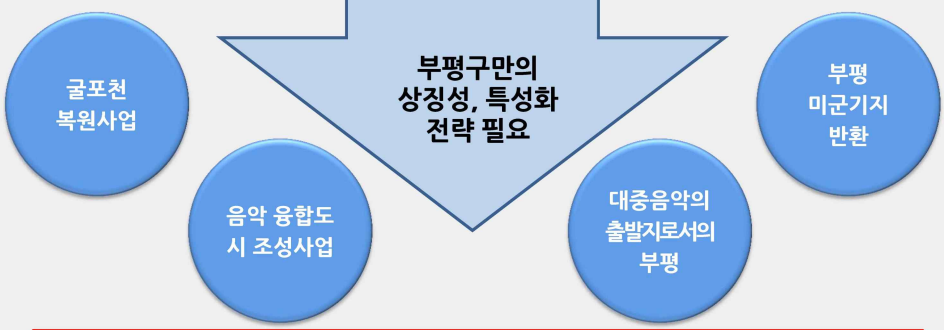
17

문화예술 주민 인식 및 요구조사

1. 부평 왜 음악·융합 도시인가?

- ➢ 향후 관람 희망 문화예술행사 분야는 1위 대중문화공연
- ➢ 부평만의 지역 이미지 차별성 또는 컨셉을 갖고 있지 못함
- ➢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는 이유 - '지역 유명한' 문화예술 행사 관람' 과 '함께 이용할 만한 시설이 있어서'

•자료출처:부평구청, 「2015 부평구 구정운영방향 및 안전의식 FGI 보고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부평 고유의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발전 전략모색 필요"

18

2 부평 음악·융합도시로서의 변화 모색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비전 및 목표

2. 부평 음악·융합 도시로서의 변화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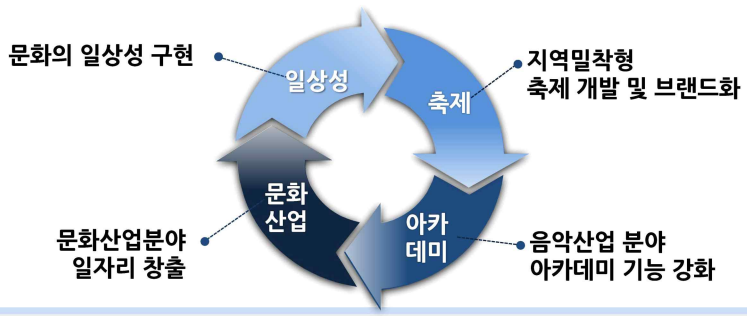
비전

음악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 문화도시 창출

목표

-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를 중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 회복
-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 및 창의적 재생산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 음악을 중심으로 생산·연구·지원·소비기능이 융합된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핵심전략



20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내용

2. 부평 음악·융합 도시로서의 변화 모색

콘텐츠 및 프로그램

- 음악관련 기획 프로그램
  - **밴드페스티벌** : 부평의 음악 정체성 확산 및 음악융합도시 브랜드 콘텐츠 육성
  - **인디음악 공연지원사업** : 지역 내 인디밴드 공연활동 지원을 통한 신진음악가 육성
  - **지역자원 스토리텔링을 통한 재창조** : 부평 미군주둔지 주변 마을 이야기 조사 발굴 2차 문화자원으로 재창조(희극공모)
- 시민제안 공모사업
  - **컬처드림(Culture Dream) 펀처드림** :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와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진행
- 네트워크 구축사업
  - **부평예술 장터** : 인천 커뮤니티모임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고장터와 프리마켓을 결합한 예술장터를 통해 시민과 예술가 네트워크 구축
- 창의인재 육성 사업
  - **음악산업 컨설팅 및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 신진음악가(기업) 인큐베이팅
  - **청소년 대상 대중음악 창의교육** : 대중음악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청소년 창의력 향상
  - **시민대상 문화예술 아카데미** : 밴드동아리활동 지원 및 음악을 활용한 인문학·역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장소구축

- 「BP음악산업센터」 조성
  - 음악제작· 연습 · 교육시설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음악산업센터 조성
- 부평3동 '음악동네' 조성
  - 유휴공간 및 임대공간을 활용하여 라이브클럽 및 음악전문카페 등 음악창작 공간 및 소비공간 유치
- 도심 속 아뜰리에 마을조성
  - 부평1동 굴포천 복개구간을 거점으로 청년몰 및 공예공방 등 문화소비공간 조성 (도시재생 사업 연계)

21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내용

2. 부평 음악·융합 도시로서의 변화 모색

● 부평문화벨트 조성계획 수립

- **사업목적** : BP음악산업센터, 부평3동 음악동네, 부평1동 굴포천 복개구간 등 3개의 거점공간을 연계한 문화벨트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 수립
- **사업 주요내용**
  - 'BP음악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연구.지원.소비기능이 복합된 문화산업 클러스터 전략 개발
- **사업 기대효과**
  - 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문화산업도시 이미지로의 변화
  - 부평 문화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시설 및 장소	추진내용	주요기능
①BP음악산업센터 (현 부평아트하우스)	- 음반산업 지원 및 창작환경조성 - 음악관련 기업 입주공간 지원	생산.지원.교육기능
②부평아트센터	- 공연장 및 밴드페스티벌 운영	매개기능
④부평3동 음악동네	- 클럽 및 음악카페 유치 - 연습실 조성	음악중심 생산.소비기능(클럽, 카페)
③백운역 철로변 생태공원 ⑤부평공원	- 버스킹 공연 장소 - 휴식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기능
⑥부평 아뜰리에 마을 (부평1동 굴포천 복개 구간)	- 시각.공예 장르를 중심으로 한 청년몰 조성	공예.시각예술 중심 소비기능, 레지던스 기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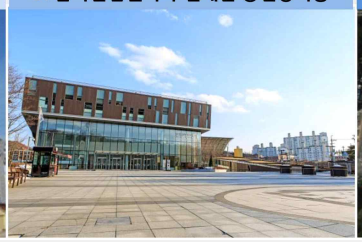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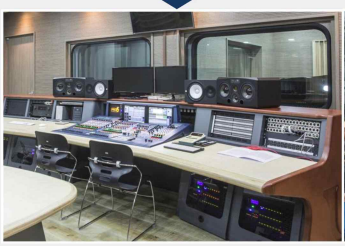
부평문화벨트 조성 계획(안)

23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내용

2. 부평 음악·융합 도시로서의 변화 모색

부평문화벨트 조성계획 수립 (도시문화브랜드구축사업)

① BP음악산업센터 음반산업분야 컨설팅, 인력양성프로그램 음악관련기업 입주지원	② 부평아트센터 밴드페스티벌 브랜드화, BP음악산업센터와 연계한 공연장기능	③ 백운역 철로변 생태공원 : 부평아트센터와 연계하여 활용 (2015. 10. 완공예정)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내용

● 부평문화벨트 조성계획 수립

④ 부평3동 음악동네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라이브클럽, 음악카페 등 유치	⑤ 부평공원을 활용한 음악공원 음악을 컨셉으로 한 지역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진행	⑥ 도심 속 아뜰리에 마을조성 부평1동 굴포천 복개구간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아뜰리에 마을 구축

머물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지속가능 한 문화도시 부평

부평구민의 문화적 삶 실현

- 컬쳐드림, 펼쳐드림!(시민공모사업)
- 부평예술장터(중고장터+프리마켓)
- 청소년 · 시민대상 문화예술 창의교육
- 지역민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재생산

- 밴드페스티벌
- 미군주둔지 주변마을 이야기 조사 · 발굴
- 조사된 자원을 2차 문화자원으로 활용

음악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력양성

- 인디음악공연지원사업
- 음악관련 1인 기업 인큐베이팅(입주지원)
- 멘토링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 BP음악산업센터 조성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조성

- 음악동네 조성
- 도심 속 아뜰리에 마을 조성

26

토 론 1

부평을 음악도시로 범주를 정해야 한다

임 진 모 | 음악평론가

부평을 음악도시로 범주를 정해야 한다

임진모(음악평론가)

1 부평을 보는 시선

1) 기지촌과 클럽 문화에 대한 편견 홀대 배제의 풍토로 당시 클럽음악과 부평이란 지역과의 문화적 유착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
2) "부평에서 딸 낳지 말고 소사에서 아들 가지지 마라!"라는 속설이 말해주듯 부평의 삶과 기지촌 삶은 유리, 단절된 상태
3) 이러한 이유로 클럽에서 가지치고 발전해온 음악이 부평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

2 당시 음악들의 복원 작업 지원

1) 재즈 스탠더드, 로큰롤, 컨트리와 포크가 애스컴 영내와 영외 클럽에서 성행
2) 음악의 다양한 형태를 복원해 한국 대중음악의 모던화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
3) 부평 일대에서 활약하는 밴드와 가수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공연 및 연극 뮤지컬 기획
4) 큰 공연보다 소규모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집객의 증대를 위해 홍대 인디 음악계와 연계하고 이를 대형행사화로 발전시킴
6) 부평에 음악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5~6년 장기적 시점으로 접근

3 부평역사박물관에 대해

1) 현재 위치는 근린공원 주변 시설이라는 인상
2) 부평아트센터 주변에 소형 '음악박물관' 건립 필요
3) 줄기찬 콘서트와 박물관을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
4) 별도 소형 음악박물관 건립이 어렵다면 기존 역사박물관의 음악 부문 대폭 보강 - 관련 사료 채집과 발굴 지원

4 음악도시 이미지로 선택 집중

1) 문화적 관점보다는 음악적 관점으로 구체화
2) 기존의 축제를 비롯한 여러 문화행사와는 별개의 기획, 실행이 효과적임

토 론 2_

음악중심의 문화도시를 향한 부평의 고민

이 현 식 | 인천문화재단 근대문학관/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를 향한 부평의 고민

이현식(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인천아트플랫폼 관장)

1.

부평이 음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로 가겠다는 계획은 매우 야심차다. 부평미군부대에서 그 역사적 연원을 찾아 한국 대중음악의 기원의 한 뿌리가 부평임을 드러내는 글이나 부평풍물축제의 성과, 현재 활동중인 여러 밴드들의 현황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번 발제문에 근본적인 이견은 없다. 오히려 발제문의 커다란 방향이나 글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몇가지 더욱 내실있는 계획을 위해 보완될 사항을 덧붙임으로써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2.

우선은 전통, 혹은 지역 정체성과 관련한 것이다. 부평미군부대에서 유래한 대중음악과 부평의 친연성에 대한 근거의 문제를 조금 더 숙고해야 한다. 여러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통은 현재의 삶의 조건이나 구조 속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때 살아있는 전통이 될 수 있다. 에스캄 시절 부평의 음악홀은 그 전통이 끊어진지 오랜 시간이 되었다. 미군부대의 실질적 소멸과 부평의 생활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말이 과거의 그런 자취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과거의 것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경계할 것은 과거의 신화화이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존재를 끌어들여 덮어버리고 지금 이곳의 삶의 문제를 과거와 직접적으로 이어내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대중(부평 내외의 시민들)의 지속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과거가 현재의 문제를 덮어씌워 현재의 생동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억 속에만 머물러 있는 과거가 되어서도 안 된다. 현재와는 관계없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추억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부평이 추진하는 음악도시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나는 이런 토론의 과정이 그것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과거의 해석과 현재화에 토론의 초점이 조금 더 분명하게 맞춰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총론에서 음악 내부의 논의로 조금 더 들어가거나 혹은 총론에서 부평과의 연관성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다. 발제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거기에서 어떤 토론거리를 이끌어내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더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그것과의 연장선 위에서 음악도시 부평밖에 할 수 없는 것들, 다른 도시와의 명확한 차별성이 조금 더 강조되고 구체화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의 설득력있는 논리가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현재에 제시된 것도 공감이 가는 것이 많다. 그런데 아, 이것은 정말 부평밖에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혹은 부평이 이것을 하면 다른 도시와의 변별력이 분명하겠구나 하는 점이 뚜렷하지는 않다. 이것을 왜 강조하는가 하면 부평은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홍대 앞이나 강남의 기획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부각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어쩌면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내 눈에 잘 띄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부가적인 설명으로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체 형성이다. 그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 꼭 전문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과 전문가, 기획자들을 어떻게 부평으로 끌고 올 것인지, 아니면 부평에서 키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어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어떻게 일상적으로 다른 도시와 구별되게 음악의 일상화를 누릴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혹은 로드맵 같은 것이 함께 제시되었으면 한다. 창의인재 육성 아래에 몇 가지 계획이 나와 있으나 아 이거면 되겠구나 하는 눈에 잡히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제한된 발표 분량으로 혹시 보완되어 설명될 수 있다면 부가적인 설명을 기대하겠다.

4.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에게 부평에 언제 오셨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시지만 1939년에서 1941년 사이에 충남 아산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솔가하여 부평에 정착하셨다고 들었다. 그때 부평의 조병창 앞에서 뭔가를 만들어 팔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기에 일제 말기 힘겨운 시절에 부평으로 오셨다고 들었다. 나는 어린 시절을 부평 철도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런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본적도 여전히 나는 부평동 610번지이다. 지금 동수 교회 맞은 편이 나의 유년의 기억이 서린 곳이다. 뒷동산에서 개구리를 잡아 구워먹고 불장난을 하다가 데인 상처가 지금도 손 위에 어렴풋이 남아있다. 어머니는 부평 미군부대에서 나온 빼빠(당시엔 이렇게 불렀다)로 설거지를 했고 루핑이라는 것을 얹은 판자집들이 즐비했었다. 어렸을 때니까 그때 미군부대 앞에 그렇게 많은 클럽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삼능으로 가는 길에 경찰학교 쪽은 숲이 우거져 있었고 거기에 고아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작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준다고 찾아갔던 기억이 있다. 거기에서 처음 보는 공연자들의 음악도 들었었다. 그것이 부평 미군부대의 밴드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미군부대 근처의 클럽이 오늘날 부평에서 어떻게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과거의 식민화된 기억이 어떻게 시민들과 현재 음악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삶의 음악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애정과 기대를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

M E M O

M E M O

M E M O

2·0·1·5 부 평 문 화 포 럼

3회차 왜 '부평 음악·융합도시'인가?

2015년 11월 10일 인쇄
2015년 11월 10일 발행

주　　최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후　　원 | 부평구